

남원 하이츠콘도, 10년만에 새 주인

10여년간 36번 입찰 끝 매각 남광랜드, 16억5000만원 완납 대규모 투자... 경제 활성화 기대

남원시가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긴축재정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방치됐던 '지리산하이츠콘도' 매각이 이뤄져 안정적 세입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매를 시작한 지리산하이츠콘도가 36번째 입찰 시도 끝에 지난 7월 15일 매각이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지난 26일 공매대금 16억5172만6000원까지 완납되면서 새 주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상 12층, 지하 2층 객실 153실 규모의 지리산하이츠콘도는 1995년 사용승인을 받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성장하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경영난을 겪다가 코로나19 등의 경영환경악화로 후폐업을 거듭하며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에 손실을 끼쳐 왔다.

최경식 시장은 시장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지리산하이츠콘도 활성화를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장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한 끝에 마침내 매각절차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10년간 방치, 36번 입찰 거치며 드디어 주인을 찾게 된 남원 지리산하이츠콘도.

하이츠콘도를 최종 인수한 (주)남광랜드에서는 향후 대규모 투자와 함께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도심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하이츠콘도 등 방치된

집합건물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져 안정적인 세입까지 확충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인수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장학재단 다자녀 혜택 확대

선발기준 3명→2명... 고창장학숙 입사생 선발 시 가점 신설

고창군장학재단이 올해부터 다자녀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 및 사무국장 연임, 인사 및 보수 규정 일부개정,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고창장학숙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5건을 심의했다.

특히 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국장 및 관리소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 다자녀가정 장학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고창장학숙 입사생 선발 시 다자녀가정 가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고창군장학재단은 1998년 개관한 이래 전주와 서울장학숙 운영을 통해 1780여명의 학생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265명의 학생에게 1억 591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1억 9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고령자복지주택 '은빛복지관' 개관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세대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 은빛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세대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 은빛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군수, 조민규 의장, LH 전북지역본부, 선운사복지재단, 대한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및 입주세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 이후 복지시설과 입주세대 주거공간을 둘러보고, 경로식당에서 급식봉사가 이어졌다.

고창군 은빛복지관은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강당, 체육단련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선운사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맡는다.

고창군노인종합복지관 시설과 결합된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은 2019년 고창군-LH 간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비 약 200억원으로 128세대를 지난해 11월에 완공했고, 이후 1층 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이날 고창군 은빛복지관이 개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환경오염 예방 불법 오염물질 배출 단속

폐수·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중점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 및 육류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를 비롯해 폐수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주요 대상이다.

또 아스콘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관내 207개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예방 조치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관련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병행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 하겠다"면서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전북대,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 개소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남원시 죽향동 소재 이음센터에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를 공식 개소했다.

남원발전연구소는 전북대 'JBNU 지역발전연구원' 산하 연구소다. 남원시와 전북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소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인

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남원발전연구원은 향후 남원지역 특화 분야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지역발전 포럼도 이어졌다. 포럼에는 전북대, 전북연구원 및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백기태 전북대 기획처장은 '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 추진전략'을, 하의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원시 산업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6곳 추가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90분 이내 완충...이동약자 편의 강화

정읍시가 이동약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읍시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지는 16개소로 장명동과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을 비롯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고평리 스포츠센터,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 등이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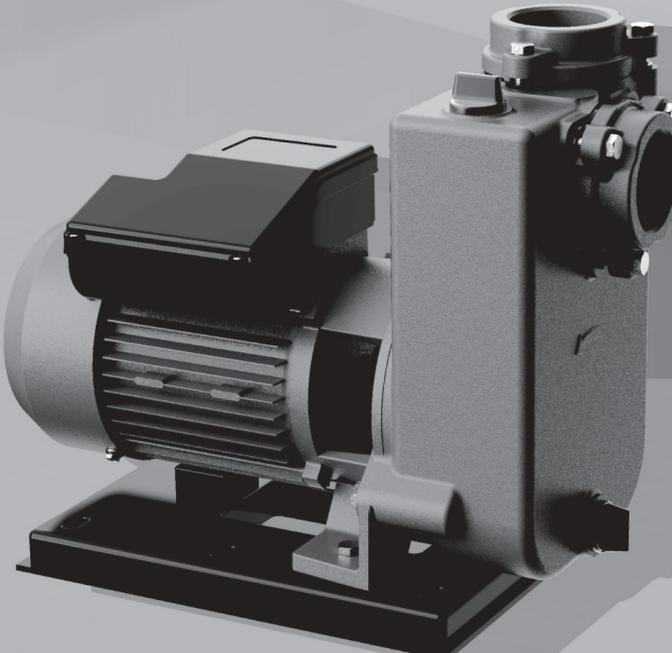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배터리 잔량에 따라 90분 이내에 완충되는 신속

충전이 가능하며 바퀴 공기주입은 물론 휴대폰 충전까지 가능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 전동보장구 제3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로 지원사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의 정책까지 추진하며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썼다.

시는 이동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